



# 농수산물 수출

## Zoom In 105호

I

수확기 빠른 국산 만감류, 감귤 농가  
효자 노릇



II

국산 온주밀감 및 만감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III

'23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실시 안내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5호 2023. 1. 16(월)

‘22.12.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119.7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red;">↓</span> 1.4%                 </div> <p style="text-align: center;">1,577.2백만불</p>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blue;">↑</span> 4.2%                 </div> <p style="text-align: center;">7,248.0백만불</p>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blue;">↑</span> 11.8%                 </div> <p style="text-align: center;">3,147.5백만불</p>
+ 닭고기, 유자차, 고추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딸기	+ 면류, 파자류, 쌀가공식품 - 켈런, 인스탄트면	+ 참치, 명태, 대구, 연어 - 김, 어묵, 오징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red;">↓</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전년대비 수출 감소</p> <p style="text-align: center;">1,632.5백만불(△1.5%)</p>	<p style="text-align: center;">배(16.3%), 유자(30.4%) 음료(6.0%), 쌀가공식품(28.3%)</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red;">↓</span> 버섯(△18.0%), 닭고기(△4.4%)                      무(△12.9%)                 </p>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orange;">↑</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중국</p> <p style="text-align: center;">봉쇄 정책으로 신선, 가공 감소하였으나 수산 호조가 전체 실적 견인</p> <p style="text-align: center;">2,198.0백만불(6.4%↑)</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blue;">↑</span> 명태(84.3%),                      라면(26.0%), 주류(5.8%)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red;">↓</span> 인삼류(△10.6%), 낙농품(△6.8%)                 </p>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orange;">↑</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ASEAN</p> <p style="text-align: center;">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관광 재개, 일상 소비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p> <p style="text-align: center;">2,432.1백만불(10.2%↑)</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blue;">↑</span> 참치(34.1%), 음료(15.8%)                      닭고기(77.7%), 인삼류(38.0%)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red;">↓</span> 리큐르(△12.5%)                 </p>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red;">↓</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p> <p style="text-align: center;">가격 경쟁력 약화로 신선 감소하였으나 가공 호조가 전체 실적 견인</p> <p style="text-align: center;">2,169.4백만불(5.5%↑)</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blue;">↑</span> 연초류(26.8%), 주류(8.8%)                      김(2.5%)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red;">↓</span> 파프리카(△10.9%), 김치(△23.9%)                      라면(△7.1%)                 </p>
<div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orange;">↑</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EU + 영국</p> <p style="text-align: center;">K-Food 수요 지속으로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 중심 수출 호조</p> <p style="text-align: center;">755.9백만불(6.3%↑)</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blue;">↑</span> 김치(3.0%), 인삼류(7.6%),                      굴(8.7%), 라면(25.7%)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red;">↓</span> 버섯류(△20.2%), 김(△15.1%)                 </p>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105호 2023. 1. 16(월)

##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12.31

### □ 인삼

- (중국 91.7,  $\Delta$ 10.6) 고강도 방역 조치의 지속과 소비 침체로 전년대비 감소
- (베트남 44.1, 50.2 $\uparrow$ )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간편 소비제품 인기
- (일본 34.5, 1.6 $\uparrow$ ) 재고 누적에 따른 수입물량 조절로 전년수준의 수출 유지

**269.9백만불 (1.1% $\uparrow$ )**

주요 수출국 : 중국(91.7백만불,  $\Delta$ 10.6%), 베트남(44.1, 50.2%), 일본(34.5, 1.6%), 미국(33.9,  $\Delta$ 1.3%), 대만(24.7, 20.8%), 홍콩(17.3,  $\Delta$ 26.8%)

### □ 파프리카

- (일본 72.9,  $\Delta$ 10.9) 소비자심리 악화 및 일본 자국산 야채 가격 하락세, 엔저에 따른 한국산 가격경쟁력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73.1백만불 ( $\Delta$ 10.9%)**

주요 수출국 : 일본(72.9,  $\Delta$ 10.9%), 홍콩(0.1,  $\Delta$ 20.5%), 중국(0.0, 53.8%)

### □ 배

- (미국 35.9, 16.3 $\uparrow$ ) 연말 특수 및 작황 호조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수출 증가
- (대만 21.3,  $\Delta$ 23.5) 자체 육성 품종(감로)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배 수요 감소

**74.5백만불(3.7% $\uparrow$ )**

주요 수출국 : 미국(35.9, 16.3%), 대만(21.3,  $\Delta$ 23.5%), 베트남(9.4, 63.6%), 홍콩(1.8, 0.2%), 캐나다(1.6, 13.4%), 인도네시아(1.2, 9.1%)

### □ 김

- (미국 148.4,  $\Delta$ 4.6) 비관세장벽 강화로 미국 유통매장으로 수출되는 조미김 수출 감소
- (일본 116.9, 2.5 $\uparrow$ ) 일본 관광 재개로 외식용 마른김 수요 증가 및 한류 영향으로 조미김, 김스낵 수요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중국 96.3,  $\Delta$ 30.9) 소비심리 위축, 자국산 선호현상 으로 수출 감소

**655.7백만불( $\Delta$ 5.4%)**

주요 수출국 : 미국(148.4,  $\Delta$ 4.6%), 일본(116.9, 2.5%), 중국(96.3,  $\Delta$ 30.9%), 태국(44.4, 2.3%), 러시아(41.5,  $\Delta$ 11.7%), 대만(30.8, 10.6%)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 농진청 이슈



### 수확기 빠른 국산 만감류, 감귤 농가 효자 노릇

최근 들어 천혜향('세토카'), 레드향('감평'), 한라봉('부지화') 등 달고 품미 좋은 감귤이 고급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만감류(晚柑類)는 대부분 수확 시기가 1월에서 3월 사이로, 일반 감귤보다 늦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 개발해 보급 중인 만감류 '윈터프린스'와 '미니향'이 12월 초부터 출하되는 장점을 내세워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윈터프린스'는 당도 12.5~13.5브릭스(°Bx), 산 함량은 1.0~1.2%로, 일반 감귤처럼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껍질이 잘 벗겨지는 특징이 있다. 나무에 가시가 없고 관리가 쉬우며 생육이 좋아 다른 감귤류보다 1년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다. 올해는 약 50~70톤이 감귤농협 유통센터를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싱가포르' 고급매장으로 수출도 진행했다. 크기는 작지만 높은 당도로 시장 공략에 나선 '미니향'의 반응도 좋다. 당도는 15브릭스(°Bx), 산도는 0.7%, 무게는 30~40g이며, 12월 안에 수확할 수 있어 노지에서 재배 하기가 수월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노지에서 '미니향'을 생산하는 강창민 농업인은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미니향' 500kg가량이 이달 첫 시범 수출길에 오른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진출하는 '미니향'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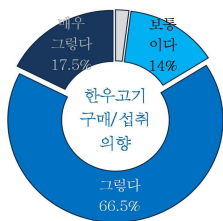
<윈터프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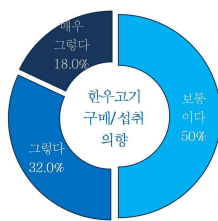
<미니향>

### 한우고기 비선호 부위, 동남아시아 4개국 소비자 성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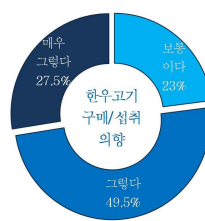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4개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우고기 구매 성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우고기를 즐겨 먹는 이유로 4개국 소비자 모두 '맛과 품미가 좋다'와 '육즙이 많다'에 5점 만점 중 4.3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베트남(4.44점), 홍콩(4.39점), 중국(4.12점) 소비자는 '근내지방 함량(마블링)이 좋은 고기'라는 이유로 한우고기를 선호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식감이 쫄깃한 고기(4.26점)'라서 좋아한다고 답했다. 한우고기를 구매할 때 선호하는 부위는 중국, 홍콩, 베트남 소비자 모두 등심, 채끝, 갈비를 상위 3위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채끝, 양지, 등심 순으로 선호했다. 국내에서는 비선호 부위로 알려진 목심과 설도를 베트남(목심 55%)과 말레이시아(설도 57.5%) 소비자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국거리로 쓰이는 양지도 중국(53.5%)과 말레이시아(68%) 소비자들은 용도에 구매받지 않고 우수하다고 평했다. 이번조사결과는 내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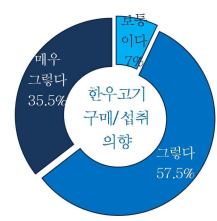
<중국 구매의향>



<홍콩 구매의향>



<베트남 구매의향>



<말레이시아 구매의향>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 국산 온주밀감 및 만감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 포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검역본부는 국산 감귤류의 대뉴질랜드로 수출을 위해 국산 감귤류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뉴질랜드 검역관을 초청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 '23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실시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역본부는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출상대국 검역요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중국 등과 같이 양국이 합의하여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선과장 및 재배농가의 검역요건 준수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2023년에도 수출 참여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가에서 재배 중 활용할 수 있는 방제기록부와 예찰기록부도 제작·배부하는 등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품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